

AOA 미니앨범 발표 쇼케이스 '눈물바다'

"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을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민)

그룹 'AOA'가 지난 16일 네 번째 미니앨범 '굿 럭(GOOD LUCK)'으로 돌아왔다. 음원강자답게 공개와 동시에 타이틀 곡 '굿 럭'은 7개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했다. 기빠야 마땅한 컴백 쇼케이스 현장 AOA 멤버들은 초반부터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쏟았다.

"앞으로 더 신중할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설현)

컴백에 앞서 멤버 지민(25)과 설현(21)이 온스타일 리얼리티 프로그램 채널AOA에서 했던 안중근 의사를 '긴포깁'(김두권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던 탓이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앞선 데 댄친 격으로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도 일본 브랜드 자동차명이 그대로 노출됐다가 급하게 가린 게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브랜드 PPL 문제로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안중근 의사 관련 발언과 연관 있

안중근 의사를 '긴포깁'이라고 했던 발언 등 사과



그들 'AOA'가 지난 16일 네 번째 미니앨범 '굿 럭(GOOD LUCK)'으로 돌아왔다.

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1년 만에 컴백하는 거라서 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좋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요. 그만큼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조아)

눈물바다였던 현장 분위기와는 달리 AOA가 들고 온 '굿 럭'은 해양구조대원을 콘셉트로 멋지고 당당한 모습을 표현한 앨범이다. 오프시절, 캣우먼, 라크로스 선수 등 매번 눈에 띄는 콘셉트로 주목받은 만큼 '콘셉트블'이라는 명칭에 어울릴만한

것을 고민했다.

"노래에 어울리고 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콘셉트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찬미), "건강하고 멋진 콘셉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바꿨어요."(민아)

'굿 럭'은 강렬한 드럼 비트와 로우 베이스가 인상적인 팝 댄스 장르로 초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곡이다.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하는 당찬 AOA의 모습을 표현했다.

개인 활동, 유닛 'AOA 크림' 활동 등에 치중했다가 11개월 만에 하는 완전체 활동이다. 그만큼 각자 활동을 통해 성장한 멤버들의 모습이 녹아 있다.

앨범에는 몽환적인 멜로디의 레트로 신스 팝 '10 seconds(10 Seconds)', 펑키와 싱어에 이어 록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체리팝(Cherry Pop)',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크레이지 보이(Crazy Boy)', 슬픈 발라드 곡 '스틸 폴스 더 레인(Still Falls The Rain)' 등 모두 다섯 곡이 실렸다.

시작은 눈물과 함께였지만 '굿 럭'은 제목처럼 AOA에게 즐거운 행운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예쁘게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찬미)

/오성주기자



진북초 야구부 창단후 첫 전국대회 4강 진출

초등학교(교장 서명옥) 야구부가 창단 이래 최초로 전국대회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 '제12회 천안흥터링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진북초는 투수 겸 3루를 맡은 이재현(6학년)선수의 빼어난 활약을 앞세워 호성적을 거뒀다. 전주시 유일의 야구부인 진북초 야구부는 변변한 실내연습장이 없어 우천이나 등절기에는 훈련을 못하거나 풍뎉 언 고사리 손으로 훈련을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부 조병찬 감독은 "출전선수 모두 고른 활약을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어린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공도팀, 회장기 시·도대항 대회 우승

전북체육회 공도팀이 평창 태화장에서 열린 '제30회 회장기 시·도대항 공도대회'에서 광주와 세종을 따돌리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북체육회 팀 선수들은 모든 선수의 고른 활약으로 2, 3위권 팀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으로 이끈 왕희성 감독은 "종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도 있었으나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포함하여 집중력을 더욱 강화해서 이 전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민근기자

류현진, 재할 '순조롭다면 6월 중순 복귀' 예상

재활중인 류현진(29·LA 다저스)이 6월 중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LA 타임스는 17일(한국시간) "재할 과정이 순조롭다면 류현진이 6월 중순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이 앞으로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4, 5차례 정도 재할 등판을 하며 실전 감각을 조율하고 체력을 끌어올린 뒤 복귀한다는 것이 LA 타임스의 설명이다.

류현진은 전날 다저스 산하 싱글A팀인 란초 쿼카몬가 유니폼을 입고 인랜드 엔하이퍼(LA 에인절스 산하)와의 싱글 A 경기에 선발로 나서 첫 재할 등판을 치렀다.

이날 2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20년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삼진 2개를 잡았고,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김민근기자

NBA 오클라호마 서부콘퍼런스 결승 1차전 먼저 웃어

커리 26득점 활약한 골든스테이트에 108-102로 승리

오클라호마시티 썬더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서부콘퍼런스 결승에서 먼저 웃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라클 아레나에서 벌어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서부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1차전에서 108-102로 이겼다.

서부콘퍼런스 3위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은 오클라호마시티는 2위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4승2패로 몰리치고 결승 무대를 밟는데 이어 결승에서 올 시즌 최다승을 기록한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먼저 승리를 수학, 상승세를 이어갔다.

러셀 웨스트브룩과 케빈 듀란트가 26득점 10리바운드, 27득점 12어시스트 6리바운드로 활약하며 오클라호마시티 승리를 이끌었다.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홈경기 패배를 떠안았다.

올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스테판 커리는 26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

로 활약했으나 팀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드레이몬드 그린(29득점 5리바운드), 클레이 톰슨(25득점 9리바운드)의 활약도 빛이 바랬다.

전반을 47-60으로 크게 뒤진채 끝낸 오클라호마시티는 3쿼터 중반 웨스트브룩이 3점포 두 방을 꽂아넣어 66-68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3쿼터 막판 커리에게 3점포 두 방을 헌납하면서 다시 골든스테이트에 12점차(69-81) 리드를 내줬다.

그러나 웨스트브룩의 덩크슛으로 기세를 살린 오클라호마시티는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웨스트브룩의 골밑슛과 애덤스의 자유루, 듀란트의 2점슛으로 점수를 쌓아 85-88까지 따라붙었다.

4쿼터 시작 직후 듀란트가 3점포를 꽂아 넣어 동점을 만든 오클라호마시티는 디온 웨이터스가 골밑슛과 3점포를 연달아 터뜨려 98-88로 리드를 잡았다.

경기 종료 4분여 전부터 약 3분 동안 득점하지 못한 오클라호마시티는 커리에게 3점포를 얻어맞고 그린, 해리스 반스에게 2점슛을 헌납해 101-100까지 쫓겼다.



케빈 듀란트(사진 오른쪽)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라클 아레나에서 벌어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서부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1차전에서 경기 도중 러셀 웨스트브룩(사진 왼쪽)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시티는 애덤스의 자유루와 듀란트의 2점슛, 웨스트브룩의 자유루로 점수를 더해 승부를 갈랐다.

한편 2차전은 19일 골든스테이트의 홈구장에서 벌어진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